

영향 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6. 8. 23.(화) 10:00 (총 22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최두수 장기예보관 시미정
		전화번호	053- 952-0366 070-7850-2223

**3개월전망(2016년 9월~11월)**

[기 온] 9월과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강수량] 9월과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1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음

[태 풍] 태풍은 8~12개가 발생하여,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음

- (9월) 전반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끼는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1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엘니뇨/라니냐 전망) 가을철에 약한 라니냐가 발달하여 남은 하반기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3개월전망(2016년 9월 ~ 11월) 요약]



#### ※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

기간 \ 요소	9월		10월		11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균기온	20.1°C	-0.4 ~ 0.4°C	14.2°C	-0.5 ~ 0.5°C	7.5°C	-0.5 ~ 0.5°C
강수량	152.2mm	75 ~ 125%	42.0mm	80 ~ 120%	38.7mm	70 ~ 130%

※ 평년기간 : 1981~2010년

※ 강수량 전망의 '평년 비슷' 범위는 평년기간 중 발생한 극값을 제외하고 산출되었습니다.

#### ※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20:40:40)	평년보다 높음(많음)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40:30:30) (30:40:30) (30:30:40) (40:40:20)	평년과 비슷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 【 알 림 】

- 1·3개월 전망은 "기상청 누리집→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6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16년 가을철 전망

## 목 차

- I. 여름철 기상특성
-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III. 가을철 전망
- IV. 최근 10년 가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V. 겨울철 기후전망
- VI. 태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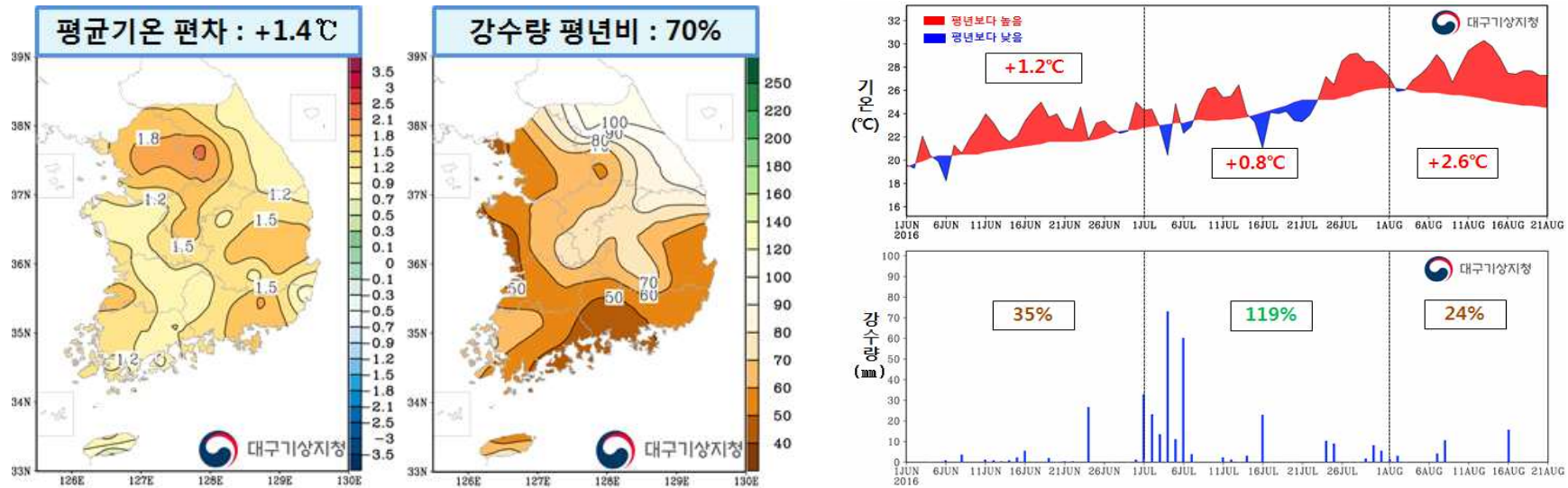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 I. 여름철 기상특성

## 1. 기온과 강수량(2016.6.1.~8.21.)

- 여름철 평균기온은 24.8°C로 평년(23.4°C)보다 1.4°C 높았음.
  - 6월, 7월, 8월 평균기온은 22.3°C, 25.1°C, 28.0°C로 평년(6월 21.1°C, 7월 24.3°C, 8월 25.4°C)보다 1.2°C, 0.8°C, 2.6°C 높았음.
- 여름철 강수량은 367.2mm로 평년(522.9mm)대비 70%였음.
  - 6월 강수량은 48.1mm로 평년(137.3mm)보다 적었고, 7월에는 283.7mm로 평년(234.4mm)보다 많았으며, 8월에는 35.5mm로 평년(149.8mm)보다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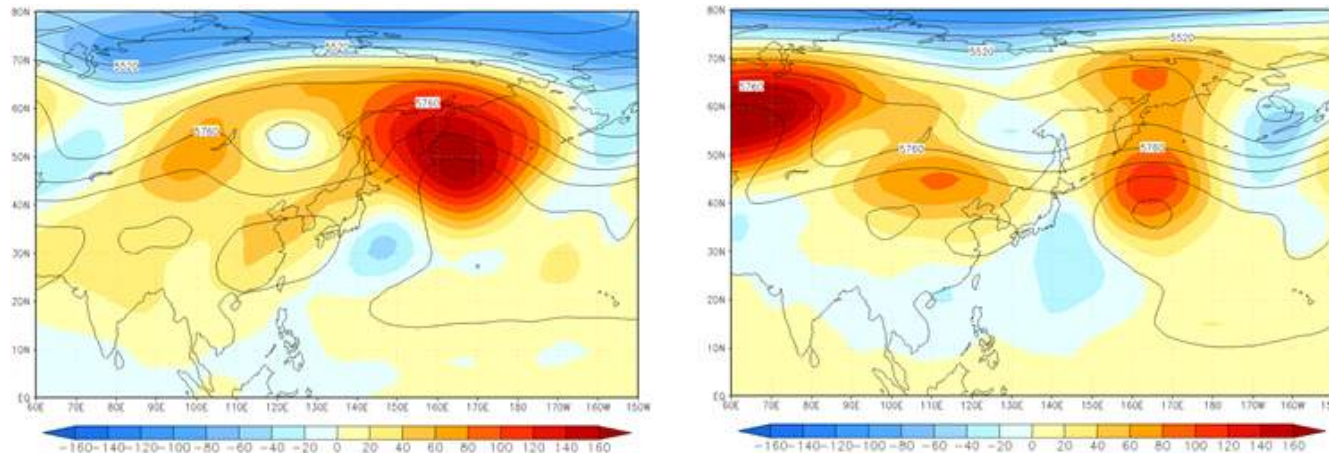


[그림 1] (왼쪽) 여름철 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평년비 분포, (오른쪽) 일평균기온 편차와 일강수량 시계열(2016.6.1.~8.21.)

## 2. 여름철 특이기상

### ○ 7월 후반~8월 무더위 지속

- 7월 후반~8월(7.23~8.21.) 동안 대구·경북 평균 최고기온이 33.7°C로 평년(30.2°C)보다 3.5°C 높아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 2위 : 2013년 33.6°C, 3위 : 1995년 33.5°C
  - 7월 후반에 베링해 부근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지속되었음.
  - 8월에 중국 대륙에 형성된 강한 고기압으로부터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서 강한 일사로 지면가열이 더해지면서 무더위가 지속되었음.
- ⇒ 7월 후반부터 현재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었음.



[그림 2] (왼쪽) 7월 후반(7.23~7.31.) 및 (오른쪽) 8월(8.1~8.18.) 500hPa 지위고도(실선) 및 편차(채색)  
빨간색 :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 파란색 :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

○ 폭염 및 열대야 지속

- 여름철(6.1.~8.21.) 대구·경북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1.3일과 6.7일로 평년(12.7일, 4.4일)보다 많았음.
- 폭염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열대야는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폭염연속일수 - 의성 : 8.3.~8.21.(19일간) / 영주 : 8.10.~8.21.(12일간) / 대구 : 7.26.~8.1.(7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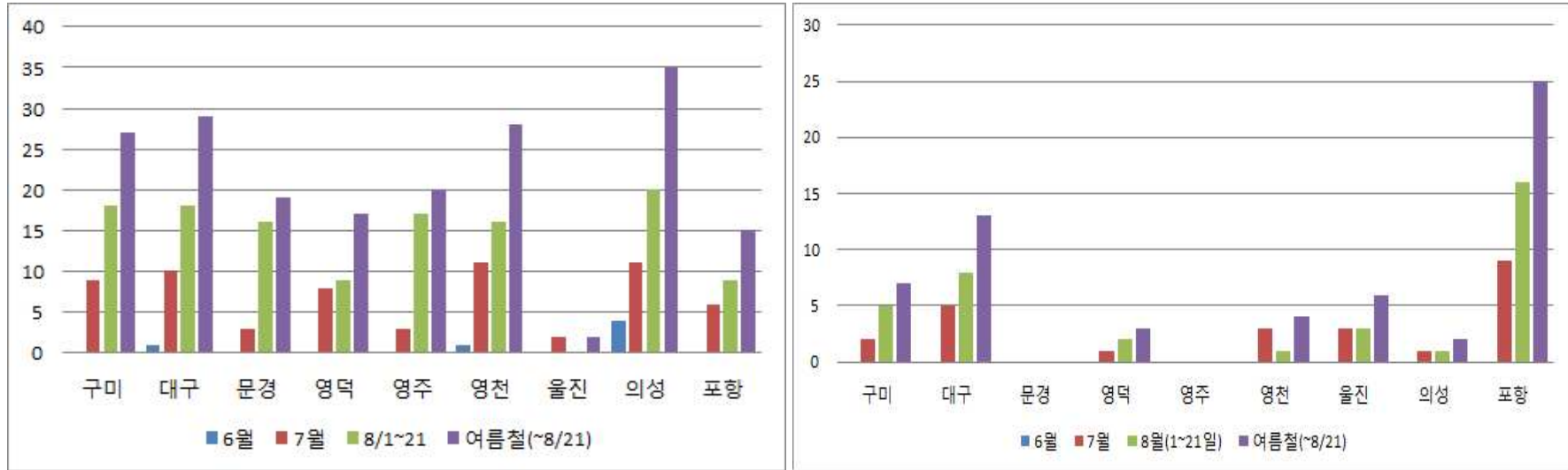
※ 열대야연속일수 - 포항 : 7.24.~7.31.(8일간) / 대구 : 8.10.~8.15.(6일간)

[표 1] 1973년 이래 1, 2위 및 올해(2016년) 여름철 대구·경북과 대구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대구·경북				대구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위	1994년	37.7	1994년	15.4	1994년	54	1994년	37
2위	1973년	28.7	2013년	13.3	2013년	51	2013년	36
	2016년(~8.21.)	21.3	2016년(~8.21.)	6.7	2016년(~8.21.)	29	2016년(~8.21.)	13

[표 2] 여름철 기온분석[기온 단위 : °C / 기간 : 6.1~8.21]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994년	25.6(1위)	31.1(1위)	20.6(3위)	33.1	14.7
2016년	24.8(3위)	30.1(3위)	20.5(4위)	21.3	6.7
평년값	23.4	28.4	19.3	12.7	4.4



[그림 3] 2016년 대구·경북 여름철 (왼쪽) 폭염일수, (오른쪽) 열대야일수(2016.6.1. ~ 8.21.)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7월 초반 강수 집중

- 6월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고,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적었으며 우리나라 북쪽으로 차가운 공기를 가진 상층 기압골이 자주 지나가면서 장마전선의 북상도 저지되어 강수량이 적었음.
- 7월 초반(7.1.~7.6.)에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렸음.
  - ※ 7월 1~6일 기간에 내린 대구·경북 강수량이 214.3mm로, 올해 장마기간(6.18.~7.16.)에 내린 강수량(279.5mm)의 77%가 6일 동안 내렸음.
- 7월 후반~8월에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적었음.

○ 2016년 장마특성

- (장마시종) 6월 18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되어 7월 30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종료되었음.
- (장마기간) 제주도 및 남부지방이 29일로 평년보다 짧았으며, 중부지방은 37일로 평년보다 길었음.

[표 3] 올해(2016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올해			평년		
	시작	종료	기간(일)	시작	종료	기간(일)
중부지방	6.24	7.30	37	6.24 ~ 25	7.24 ~ 25	32
남부지방	6.18	7.16	29	6.23	7.23 ~ 24	32
<b>대구·경북</b>	<b>6.18</b>	<b>7.16</b>	<b>29</b>	<b>6.23</b>	<b>7.23 ~ 24</b>	<b>32</b>
제주도	6.18	7.16	29	6.19 ~ 20	7.20 ~ 21	32

[표 4] 올해(2016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기간 강수일수 및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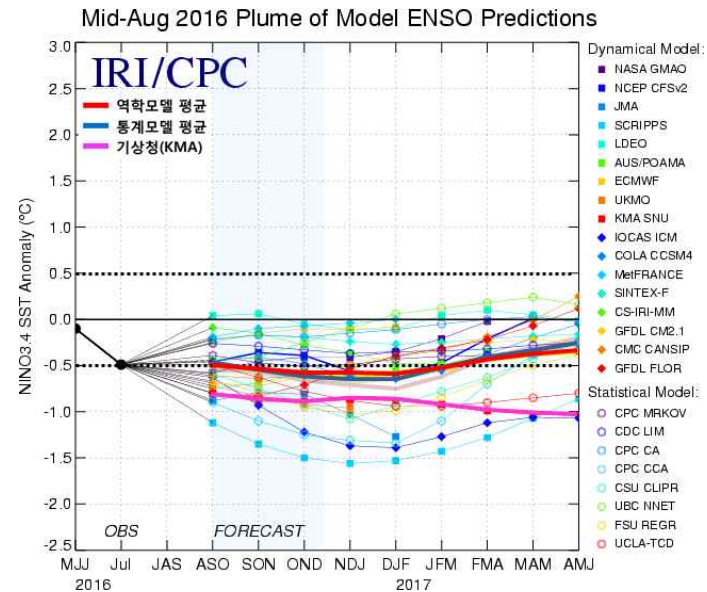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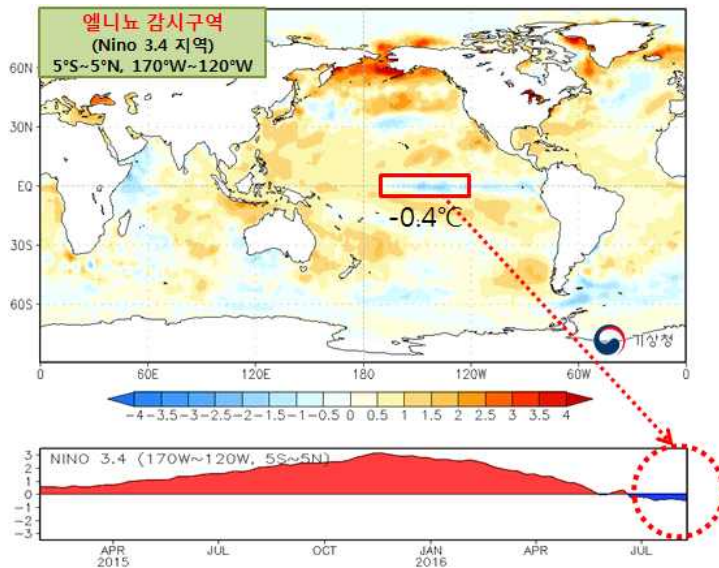
	올해		평년	
	강수일수(일)	강수량(mm)	강수일수(일)	강수량(mm)
중부지방	16.5	398.2	17.2	366.4
남부지방	15.8	283.8	17.1	348.6
<b>대구·경북</b>	<b>13.7</b>	<b>279.5</b>	<b>16.4</b>	<b>294.5</b>
제주도	18.0	347.4	18.3	398.6
전국	16.1	332.1	17.1	356.1

※ 전국 : 45개 지점 평균(중부 19개 지점, 남부 26개 지점, 대구·경북 9개 지점)



##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 7월 평균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0.4°C 낮은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올 가을철에 약한 라니냐가 발달하여 남은 하반기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왼쪽) 엘니뇨 감시구역의 7월 해수면온도 편차, (오른쪽) 세계 각국의 엘니뇨 예측 결과(출처 : IRI)

※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 2016년 5월 +0.4, 6월 0.0°C, 7월 -0.4°C, 주간 (7.31~8.6.): -0.4°C, (8.7~8.13.): -0.5°C (OISSTv2)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의 편차가 0.4°C 이상 (-0.4°C 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 Ⅲ. 가을철 전망

#### 1. 기후감시 및 분석

- (라니냐) 현재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올 가을철에 약한 라니냐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 ⇒ 9월에는 라니냐에 의한 대기 반응이 뚜렷하지 않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라니냐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11월에는 우리나라 부근에 상층골이 위치하면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겠음.
- (온난화 경향) 과거 43년(1973~2015년) 동안 가을철 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나, 강수량은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음.
- (북극해빙) 현재, 북극해빙 면적은 역대 3위에 해당될 정도로 평년보다 적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렌츠/카라해와 랍테프해의 해빙 면적도 적은 상태임.
  - ⇒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11월 후반에 바이칼호 북서부와 동시베리아 지역의 블로킹 발달로 우리나라에 한기 유입 가능성이 있겠음.

## 2. 가을철 전망

[기 온] 9월과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강수량] 9월과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1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음

### ○ 날씨전망

- 9월 : 전반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끼는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0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1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표 5] 3개월 전망(2016년 9~11월)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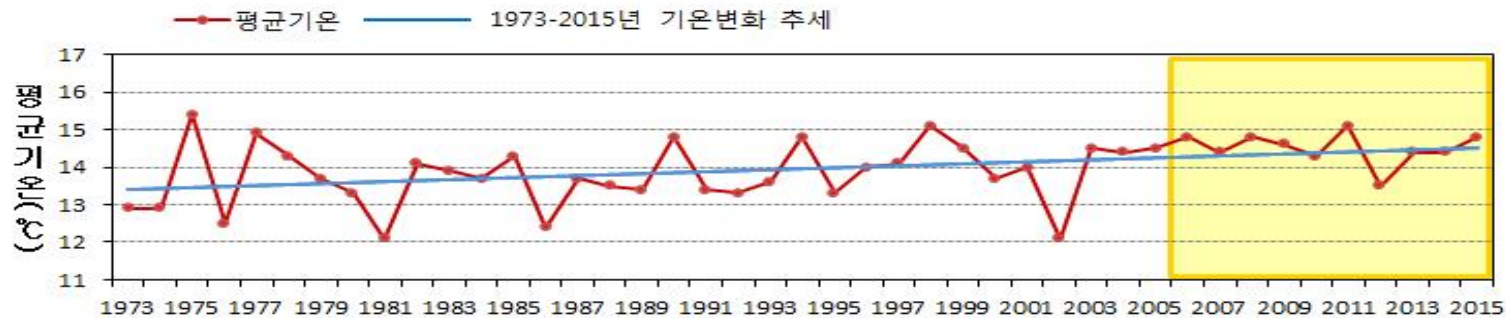


## IV. 최근 10년(2006~2015년) 가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1. 기온과 강수 특성

####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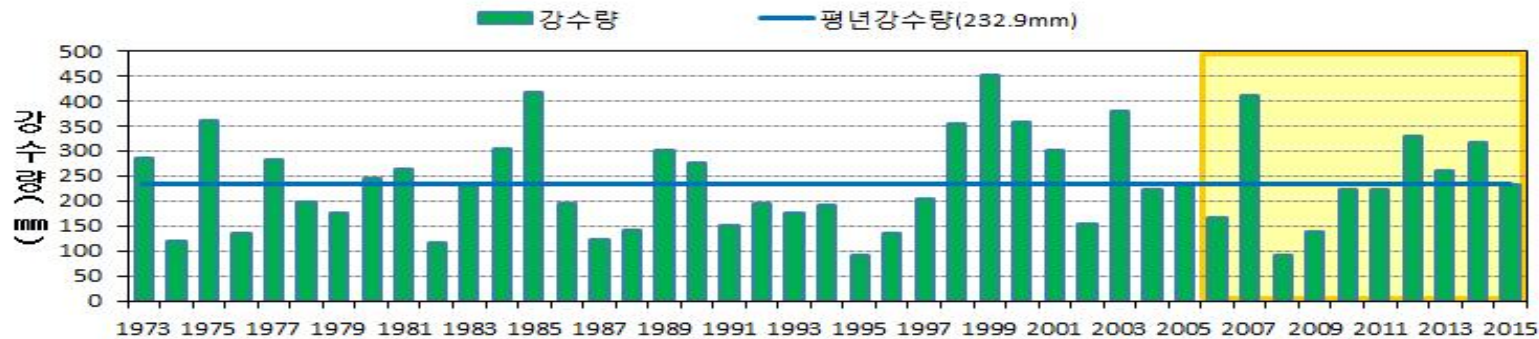
- 최근 10년 가을철 평균기온은 14.5℃로 평년(13.9℃)보다 0.6℃ 높았음.



[그림 5] 연도별(1973-2015년) 가을철 평균기온

#### ○ 강수량

- 최근 10년 가을철 강수량은 238.3mm로 평년(232.9mm) 대비 102%를 기록하였음.



[그림 6] 연도별(1973-2015년) 가을철 강수량

**[표 6]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9월	10월	11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20.5(+0.4)	14.9(+0.7)	8.2(+0.7)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5.9 / 16.1	21.5 / 9.5	13.9 / 3.2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136.1 / 9.7	54.6 / 5.7	47.7 / 7.2
일조시간	시간	162.1	203.7	156.2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14.6	21.1	16.4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0.0	0.4	8.4

※ 대구·경북 9개 지점(대구, 포항,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

※ 최근 10년: 2006~2015년, 평년기간 : 1981~2010년

### 3. 특이기상 및 영향

#### ○ 고온 현상

##### － (2015년 11월)

- 평균기온이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5, 평균 최저기온 +4.3)
- 남기의 유입과 구름 낀 날씨로 최저기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 (2011년 11월 1일~10일)

-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으며, 2일~5일 평균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9°C 가량 높아 11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편차(°C) : 평균기온 +5.4, 평균 최저기온 +7.8/일최고기온(°C) [11월 극값 1위] : 3일 안동 25.1 등, 5일 상주 25.2 등)
- 남쪽의 고온 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일찍 파종한 사료작물의 웃자람이 발생하였음

##### － (2011년 9월 12일~17일)

- 고온 현상이 나타났음(일최고기온(°C) [9월 중순 극값 1위] : 15일 대구 34.2, 영천 33.0)
-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온난 습윤한 공기유입과 강한 일사의 영향을 받았음
- 전력수급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어,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관련 사고와 교통대란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음

##### － (2010년 9월 1일~20일)

- 고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4, 평균 최저기온 +2.8)
-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 (2008년 9월 7일~24일)

-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났으며,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3, 평균 최고기온 +2.8)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
- 쌀,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없는 풍작이었으나, 농작물 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5)
-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
- 높은 기온 탓에 가을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음

○ 저온 현상

– (2015년 11월 25일~28일)

-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25일에는 강원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26일에는 서해안 지방과 일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음
- 기압골이 통과하고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지형적 영향을 받았음

– (2013년 11월 10일~30일)

- 세 차례 기온이 크게 떨어졌으며, 평균 최고기온은 2002년 이래 가장 추웠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2.2)
-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2012년 11월)

- 2002년 이래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가장 낮았음(편차(°C) : 평균기온 -0.9, 평균 최고기온 -1.6)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났음

– (2010년 9월 29일~10월 1일)

- 기온이 크게 떨어져 대관령에서는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되었고, 평균 최저기온이 10°C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29일부터 3일간 이어졌음
-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남하하였음

– (2006년 9월 5일~18일)

-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3.0[1위 2000년 -3.5])
-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쌀쌀한 날이 지속되었음

## ○ 태풍과 많은 비

### — (2015년 11월)

-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았고, 동해안 지방에 비가 자주 내렸음(일강수량(mm) [11월 극값] : 7일 울릉도 115.5[1위], 상주 21.4[4위], 8일 울릉도 87.0[2위], 11일 상주 26.3[3위]/월강수량(mm) : 128.8[2위, 1위 1997년 141.3])
-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과 함께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었고, 동풍의 영향도 받았음

### — (2014년 11월 24일)

-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11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었음(일강수량(mm) [11월 극값 1위] : 구미 45.5)
-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 (2014년 10월 20일~22일)

-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도 있었음(일강수량(mm) [10월 극값 1위] : 21일 안동 63.5, 상주 78.8, 봉화 59.0, 영주 101.0, 문경 94.0)
- 우리나라 북서쪽과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수렴대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 (2014년 10월 12일~13일)

- 12일~13일에 걸쳐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풍 전면의 난기 유입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제19호 태풍 '봉풍'이 일본큐슈 남부에 상륙하여 일본열도를 따라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

### — (2014년 9월 23일~24일)

-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9월 극값] : 24일 영주 107.5[2위, 1위 1992.09.24. 176.5])
- 제16호 태풍 '풍왕'이 중국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후 강한 바람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

### — (2013년 10월 8일)

- 제주도와 경상도지방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포항 115.5, 울진 102.5)



- 1998년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으로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대한해협을 통과하였음
- 경상도 동해안 인근 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2년 9월)**
  -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누적강수량(mm) : 9월 15일~17일 포항 264.0, 구미 251.5 등 등)
  - 제15호 태풍 '볼라벤'(8월 28일)과 제14호 태풍 '덴빈'(8월 30일), 제16호 태풍 '산바'(9월 17일)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였음
  - 7명이 사망하고, 1조 1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21일)**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었음
  - 추석연휴 첫날, 광화문을 포함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2명이 사망하였으며, 1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121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1일~2일)**
  -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었음
  -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였음
  -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기 공급이 끊겨 지하철이 중단되어 출근대란이 발생하였으며 6명이 사망하고,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9월 16일)**
  -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음
  - 제11호 태풍 '나리'가 남해안에 상륙하였음
  - 16명이 사망하고, 4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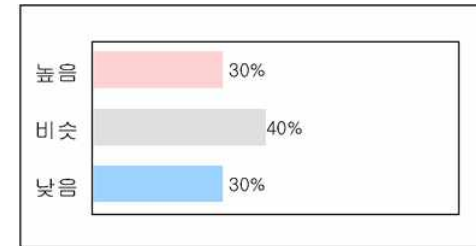
## V. 겨울철 기후전망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됨
- 가을철에 발달하는 라니냐 상태가 겨울철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 기온 전망

평년(0.6°C)과 비슷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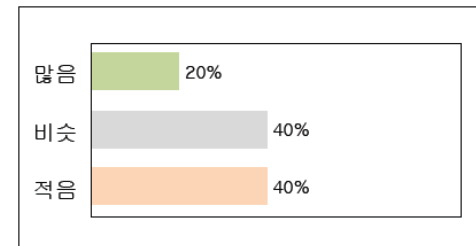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크겠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2.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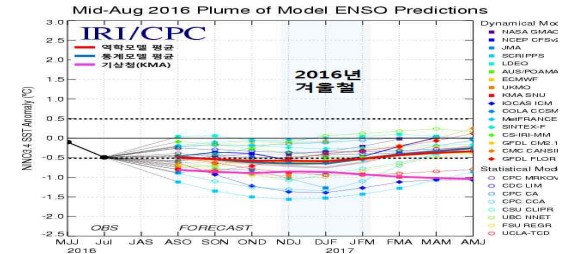
평년(88.5mm)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3. 엘니뇨/라니냐 전망

가을철에 발달하는 라니냐 상태가 겨울철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겨울철에 대한 3개월전망(2016년 12월 ~ 2017년 2월)은 2016년 11월 23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함.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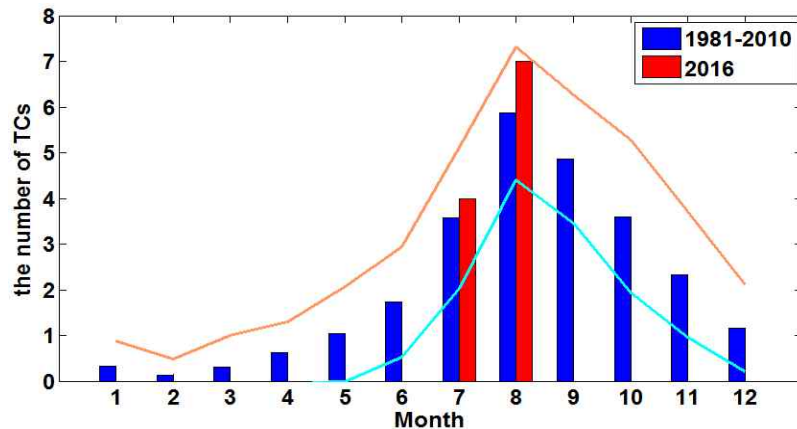
## VI. 태풍 전망

### 1. 여름철 태풍 현황과 특성(2016.8.22.09 KST 기준)

○ 2016. 8. 22. 현재까지 여름철(6.1~현재)에는 11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올해 첫 태풍인 '네파탁(NEPARTAK)'은 7월 3일 9시 괌 남쪽 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1951년 이후 두 번째로 늦게 발생한 태풍임.

※ 가장 늦게 발생한 태풍은 1998년 '니콜(NICHOLE)'로서 7월 9일에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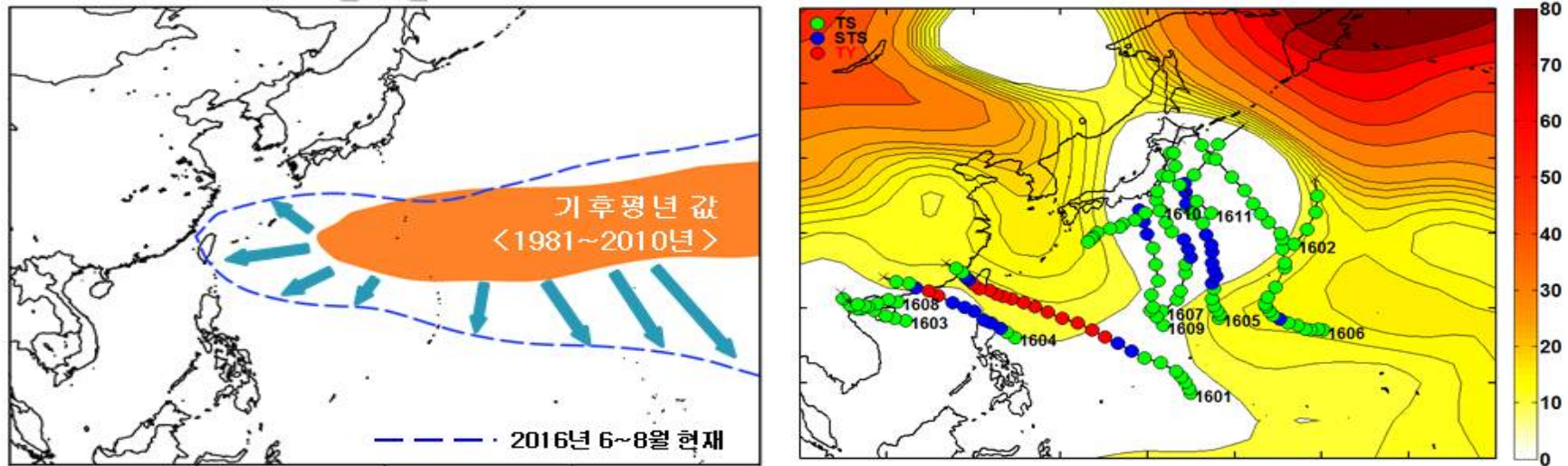
월	2016년	평년
6	0(0)	1.7(0.3)
7	4(0)	3.6(0.9)
8	7(0)	5.9(1.0)
합계	11(0)	11.2(2.2)

( ):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

[그림 기 (왼쪽) 1월~8월 태풍 발생현황, (오른쪽) 평년대비 2016년 여름철 태풍 발생 수

※ 파란색(주황색) 실선은 -1(+1) 표준편차 범위를 표시함.

- 해수면온도가 높아 대기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7월에는 열대해역의 대기 상층에 평년보다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여 태풍발생을 억제함에 따라 평년보다 적은 수의 태풍이 발생하였음. 8월 들어서는 동쪽으로부터 확장하지 못하는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류가 조직화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의 태풍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중국 남동부지역을 향하는 진로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진 또는 북동진하는 진로를 보였음.



[그림 8] (왼쪽) 2016년 6월~8월 현재까지 500 hPa 지위고도 평균장,  
(오른쪽) 여름철 발생 태풍 진로도(2016.6.1~8.22.)와 500 hPa 지위고도 편차도

## 2. 2016년 가을철 태풍 전망

- 올 가을철(9~11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평년(1981~2010년)에 비해 다소 적거나 평년 수준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수: 8~12개 예상 / 평년 10.8개
  - 우리나라 영향을 줄 태풍의 수: 약 1개 예상 / 평년 0.8개
  
- 태풍의 진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주로 일본 남동부지역을 향하는 경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통로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의 진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됨.



[그림 9] 여름철과 가을철 일반적인 태풍의 진로